

# 개방화 시대 맞은 외국학원 상륙

교육부는 6월 10일자로 제과·제빵 분야의 학원은 물론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외국인도 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계획을 확정·발표했다.

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개방의 물결을 결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바, 어쨌든 우리나라의 學院街에도 개방의 바람이 거세게 일 것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.

교육부가 이같은 학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제를 풀게 되면서 머지않아 프랑스, 일본 등 선진국들의 한국상륙은 점치기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 분명하다. 특히 프랑스, 일본 등은 빵·과자 문화가 세계의 정상을 이루다시피하고 있는 까닭에 기술·시설·자본면 등에서 우리나라의 기존학원이 적응하고 경합하는데 심각한 문제점과 양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예견키 어렵지 않다.

교육부가 이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록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는 내국인에 한하는 동시에 투자 비율에 있어서도 50% 미만으로 못을 박고 있긴 하나 선진국들이 그동안 제과학원가에 눈독을 들여왔던 그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상당수의 기존학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와 각오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.

국내의 20여개에 이르는 학원들의 경우 우선 시설면에서도 부족함이 있으며 영세성을 드러운 면면들을 거론치 않더라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강사진들의 이른바 진용과 풍부한 지도력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볼 때, 이같은 점이 경합차원에서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.

1, 2, 3차 산업 중 학원분야는 3차 산업에 속한다. 1차 산업의 농업분야도 사실에 있어 심각하며 2차, 3차 산업 역시 그러하다. 1차 산업의 한예로써 이를테면 미국으로부터 쌀을 들여오는 경우 80kg들이에 3만여원 대로 내다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현실 安住의 그늘에 문힐 도리가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.

3차 산업의 경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. 해외의 막대한 자본을 갖고 금융가에 상륙했을 때 그들의 경우 금리도 쌀 뿐 아니라 융자 또한 간편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데 이같은 상황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은 어떻게 대처해갈 것인지 이 모두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.

앞서와 같이 3차 산업의 하나인 제과학원의 개방도 심각한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. 그 대응책은 질 높은 교육을 어떻게 해 나아가느냐 하는데 있다.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는 수준 높은 강사진의 구성을 들 수 있고, 둘째는 기술지도를 위한 각종 장비의 선진화이며, 셋째는 과학적인 운영방식이 갖추어져 三位一體가 될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.

바로 이것만이 눈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, 우리나라 제과산업과 제과문화를 발전시키고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많은 제과학원의 분발이 있길 바랄 뿐이다. 